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함께하는 계명대학교



1



2

1 계명대 성서캠퍼스 정문
2 신일희 계명대학교총장 3 계명대
임직원이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나눔과 섬김은 계명대의 정신이다. 계명대는 동산의료원의 전신이자 1899년 미국 선교사들이 설립한 제중원에서부터 시작한다. 계명대는 구한말 새로운 보건 교육과 의료 봉사 기관으로 출발했다. 한국전쟁 후 폐허가 된 나라를 새롭게 건설할 인재 육성을 위해 고등교육의 탁월성을 추구하고 계명기독교학관을 세우면서 지금의 대학 모습을 갖췄다.

1899년 창립돼 2020년 창립 121주년을 맞는 계명대학교는 현재 5개의 캠퍼스(성서캠퍼스, 대명캠퍼스, 동산캠퍼스, 칠곡캠퍼스, 달성캠퍼스)를 갖고 있다. 재학생 2만2천여명, 외국인 유학생 1천여명, 대학원생 2천여명 등 2만5천여명의 학생과 교수 1천2백여명, 직원 300여명, 15개 단과대학, 22개 학부, 36개 학과, 57개 전공, 2개의 계열, 10개의 대학원으로 구성된 종합대학으로 성장했다.

계명대가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주위의 여러 도움이 있었다. 설립 초기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와 미국의 많은 독지가의 지원을 받았다. 많은 선교사가 계명대의 설립과 발전을 위해 수십년간 희생적인 노력을 쏟았다. 독지가들도 이역만리 멀리 떨어져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나라의 대학에 거금을 쾌척했다. 국내에서도 대학이 발전하는 과정에 독지가와 동문, 교직원들의 헌신적인 지원이 이어졌다.

아담스채플, 바우어관, 의양관, 백은관, 영암관, 명교생활관 등의 건물 이름은 계명대가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도와준 분들을 기리기 위해 성이나 아호를 붙여 그들의 뜻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3

이밖에 많은 사람이 계명대가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 수 있도록 헌신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계명대의 성장 과정은 나눔과 봉사 정신, 섬김과 배려 정신을 활발하게 실천하게 된 바탕이 됐다. 교직원들의 나눔과 봉사 실천은 대학의 전통이 됐다. 교직원 900여명은 2004년 자발적으로 '계명1%사랑나누기'를 조직했다. 월급의 1%를 떼 연간 4억원가량을 모은다. 기금은 장학금과 저소득층 지원, 국외 봉사활동, 불우이웃 김장 및 연탄 나누기, 난치병 학생 돕기 등으로 사용된다.

신일희 계명대 총장은 "대학은 늘 지역에 있었다. 이제는 그 존재만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과 소통하고 관계해서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을 이뤄나갈 때"라며 "계명대의 자원과 역량을 살려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지역을 혁신하고, 지역과 더불어 발전해 나가기 위해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